

Korean Trail 53rd Story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한 굽이 돌 때마다 보는 맛이 색다른 해안길

대한민국 최고의 '일출 명소'로 유명한 포항 호미곶은 새해 해돋이를 보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지난해 7월 개통한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은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와 흰 거품을 뿜어내는 파도, 철썽철썽하는 파도 소리, 무리 지어 휴식을 취하는 갈매기 떼, 작은 포구와 쓸쓸한 갯마을의 풍경 등 겨울 바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는 힐링 로드다.

글 이창호 기자 · 사진 전수영 기자



"...내가 세상에 태어나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워하는 일일 게다/ 어려서는 어른이 그림고 나이 드니 젊은 날이 그림다/ 여름이면 흰 눈이 그림고 겨울이면 푸른 바다가 그림다/ 헤어지면 만나고 싶어 그림고 만나면 혼자 있고 싶어 그림다..." - 양광모 시인의 '사람이 그리워야 사람이다' 중에서
겨울 바다 하면 동해다. 겨울의 동해는 여름 바다와 달리 날 선 바람이 살갗을 파고들지만 그래도 가슴을 뻥 뚫리게 하는 마력을 지녔다. 여름 보다 더 색깔이 짙고 푸른 바다, 암초와 해안절벽에 부서지는 흰 포말의 파도를 마주하다 보면 쓸쓸하지만 눈부시기가 이를 데 없다. 텅 빈 마음 속으로 낭만과 고독, 위로와 희망이 사나브로 스며들고, 따뜻한 커피와 국물이 그리워진다.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은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으로 맑고 투명한 바다를 옆에 두고 기암절벽과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을 수 있는 힐링 로드로 꼽힌다. 포항시는 해병대 상륙훈련장이 있는 청림 해변에서 호미곶 광장까지 25 km 구간을 4개 코스로 나눈 뒤 연오랑세오녀길(청림동~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6.1km), 선바우길(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흥환해수욕장, 6.5km), 구룡소길(동해 발산1리~구만리 여항, 6.5km), 호미길(호미곶면 구만리~호미곶 상생의 손, 5.3km) 등 코스별로 특색을 살린 이름을 부여했다. 호미곶의 '상생의 손'부터 구룡포를 거쳐 장기 두원리까지 33.6 km를 잇는 해파랑길 13·14코스와 연결되는데, 이 구간을 해안둘레길에 포함해 해파랑길(5코스)로 부르기도 한다.

정동재 포항시 국제협력관광과 관광개발팀장은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은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해안 몽돌과 백사장, 항구와 포구, 군초소 이동로 등을 그대로 활용했고 데크로드는 절벽 등 단절된 구간에만 설치해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며 "해안선을 따라 걷다 보면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선바우, 하선대, 모감주나무 군락지, 구룡소, 독수리바위 등 역사와 전설이 서린 명소를 거쳐 호미곶 해맞이광장까지 이어진다"고 말한다.

정 팀장과 함께 용 아홉 마리가 승천했다는 구룡소, 일몰이 아름다운 독수리바위, 매년 12월 31일부터 새해 아침까지 '호미곶민족해맞이축전'이 열리는 호미곶 해맞이광장의 상생의 손 등을 감상할 수 있는 3코스와 4코스를 걸어봤다. 겨울 바다의 정취를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구간은 총 11.8km에 달하며, 소요시간은 3~4시간이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겨울 바다 풍경

바람과 파도를 따라가는 해안둘레길의 제3코스 시발점을 흥환해수욕장 건너 동해초등학교 흥환분교(폐교)로 삼았다. 자동차를 주차하고 흥환교를 건너 흥환1리 방파제로 이동했다. 통발 그물이 쌓여 있는 작은 포구에는 바닷바람이 매서운 기세로 달려든다. 스마트폰을 보니 영하 6도, 체감온도 영하 11.7도라고 뜬다. 한파를 몰고 온 동장군의 입김으로 인적이 없는 포구는 쓸쓸하지만 운치가 있고, 차디찬 바람과 거친 파도는 청량감마저 느끼게 한다.

영일만을 왼편에 두고 해안길을 따라가면 옛날 구룡포읍 석문동에서 동해면 흥환리까지 약 8km 구간에 돌출타리를 쌓고 군마 등을 키우고 관

장했다는 장기 목장성비(牧場城碑)가 있다. 비각 안에는 장기 목장성비 외에도 흥선대원군의 형인 흥인군 공덕비, 목장을 관장하던 감목관(監牧官) 공덕비 등이 함께 세워져 있다.

비각을 지나면 해안절벽 비탈면 위에 해국(海菊) 군락지가 자리하고 있다. '기다림'이란 꽃말처럼 해국은 모진 비바람과 바닷바람을 견디며 가을에 보라색 꽃을 피운다. 해국이 활짝 핀 해안둘레길의 가을을 떠올리며 해안길을 따라 걸었다. 기암 아래 얇은 해변길을 걷는데 길은 돌로 포장되어 있어 걷기에 좋다. 흑한으로 빙판이 된 돌길과 걷기가 다소 불편했던 자갈길을 지나면 투구를 쓴 장군이 아이를 업고 영일만으로 걸어가 는 독특한 모양의 장군바위를 만난다.

장군바위에서 몇 걸음 옮기면 '천연기념물 제371호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군락지' 안내판이 나타나고, 그 뒤로 봄이 되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과 골짜기에 꽃이 만발한다는 발산(發山) 2리 포구가 보인다. 모감주나무 30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발산2리는 여사(余士)라 불린다. 신라가 망한 후 한을 품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어 살기 시작했는데, 모두 선비 행세를 하며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포구에 정박해 있는 어선과 매서운 겨울 해풍에 말리는 과메기가 겨울 포구의 정취를 자아낸다.

발산 2리에서 대동배리까지의 해안에는 지층 단면을 드러낸 바위 절벽 아래 파도와 해풍에 깎인 갯바위와 자갈이 펼쳐져 있다. 파도에 휩쓸린 몽돌이 화음을 만들고, 파도가 하얀 포말을 일으킨다. 파도 소리를 들으

며 자갈길을 걷다 나무계단을 오르고 난 뒤 짧은 숲길을 거쳐 해변으로 다시 내려서면 '아~'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파도의 흰 거품과 주변의 풍광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자연의 오묘함에 감탄하게 되는 코스다.

해안초소를 지나 숲으로 덮인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 400m 숲길을 빠져나가면 바닷가에 솟아 있는 동을배봉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벼랑 아래는 아홉 마리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고려 충렬왕 때부터 전해지고 있는 구룡소(九龍沼)가 있다. 구룡소는 높이 40~50m 정도, 둘레 100여m의 움푹 패어 있는 기암절벽이다.

영일군사(郡史)에 따르면 '기암절벽에는 용이 승천할 때 뿜린 9개의 굴이 있는데, 파도칠 때 그 굴로 유입된 바닷물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 용이 불을 뿜어내는 것 같고, 그 소리가 천지를 울리듯 우렁차다'고 기록돼 있는데 그 느낌은 탐방객 각자의 몫이다. 전망대에 서면 크고 작은 파도가 들끓으면서 용이 살았다는 소를 휘감고, 푸른 하늘빛이 더해져 구룡소 풍광에 생동감이 넘친다.

구룡소에서 나무계단을 내려서면 대동배 1리다. 마을의 형상이 만바다에서 보면 마치 날아가는 학의 모습이라 학달비(鶴達飛)라 불린다. 마을 버스 정류장을 지나 대동배 교회 앞에서 길이 갈라진다. 직진하면 대동배 2리까지 도로 길을 걷게 되고, 교회 뒤쪽으로 가면 소나무 숲길이 이어진다. 지방도로의 위험요소를 피해 조성된 숲길 구간으로 1.2km 내내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다. 소나무에 가려 바다가 보이지 않지만 파도 소리가 귓전을 울려 지루할 틈이 없다.



바닷가보다 포근한 숲길을 벗어나 지방도로 건너 대동배 2리에 들어선다. 한적한 마을길 중간지점에 있는 나무 데크를 통해 바닷가로 내려선다. 절벽과 파도 탓에 접근이 불가능했던 구간으로 암벽 앞 앞은 바다 위에 목재 데크를 깔아 해안둘레길을 조성했다.

길 왼쪽으로는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와 푸른 동해의 풍경이 펼쳐져 있고, 오른쪽으로는 기암절벽이 탐방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추위 탓에 고드름이 매달려 있는 데크길은 두 명이 교차해 걸을 수 있을 만큼 폭이 여유롭다. 한 굽이를 돌 때마다 보는 맛이 색다른 해안둘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 거친 파도가 포철의 웅광로처럼 끓어 넘치고, 암초에 부서지는 흰 포말의 파도를 쳐다보면 볼수록 빨려든다. 마음속 잡념이 씻어 내려가는 듯하고 눈은 더욱 맑아진다.

데크길이 잠시 끊기고 자갈길이 이어진다. 다시 데크길을 따라가면 자연이 빚어낸 조각품인 모아이 바위와 마주친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보면 이스터 섬의 모아이상을 닮았고, 그 앞바다는 겨울이어서 그런지 더 투명하고 맑다.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옷 속을 파고드는 매서운 바람이 어느새 저만치 비켜선다.

오랜 세월의 풍화작용으로 조각된 바위

거듭거듭 돌아보게 되는 해안둘레길이 이어지다 지방도로와 마주친다. 도로변에는 월보 서상만 사비 '나 죽어서'가 서 있고, 멀리 호미곶 주변 건물들이 보인다. 시비를 지나면 바로 대보면 구만리(九萬里)다. 이곳에서 동해를 빨강게 물들이며 떠오르는 해돋이가 장관인 호미곶까지는 포장도로지만 차량 통행이 거의 없고, 동해안 국토종주자전거 길과 일치한다.

구만리라는 지명은 1453년 계유정난 때 역적으로 몰려 수양대군에게 살해당한 영의정 황보인의 노비가 황보인의 어린 손자를 물동이에 숨겨 한양에서 구만리나 떨어진 호미곶으로 피신한 데서 유래했다. 후손들은 가문을 잇게 해준 노비 단량을 기리는 비석을 구룡포 광남서원에 세웠다. 한낮이어서 그런지 바람의 세기가 약해졌다. 정 팀장은 "까꾸리개로 불리는 이곳은 포항 일대에서 가장 바람과 파도가 거친 곳으로 풍파가 심하면 청어떼가 갯바위까지 떠밀려와 까꾸리(갈고리)로 쓸어 담을 정도였다"고 말한다. 구만리 어촌길을 걷다 보면 거친 파도로 악명 높은 교석초에 홀로 서 있는 녹색의 등표(燈標)가 눈에 들어온다. 1907년 이곳을 조선 침략의 전초기지로 삼기 위해 주변을 조사하던 일본 수산감습소 실습선이 높은 파도에 휘말려 좌초하면서 교관 1명과 학생 3명이 조난한 사고 이후 등표가 세워졌다고 한다. 해안가의 실습선 조난기념비는 1926년 세워진 뒤 해방 후 훼손됐다가 1971년 재일교포가 다시 세운 것이다.

갈고리처럼 구부러진 모양의 기묘한 바위가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자세히 보면 날개를 접고 앉은 독수리 형상으로 언젠가 푸른 바다 위로 날



아오르는 꿈을 꾸는 듯하다. 해 질 녘 독수리 부리에 걸리는 낙조는 색다른 감동을 준다. 바닷물 위로 고개만 빼꼼히 내민 갯바위는 온통 갈매기를 차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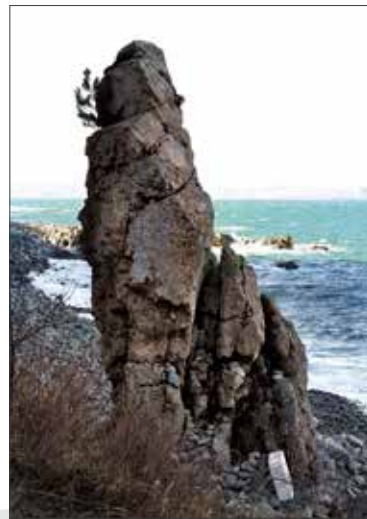
겹겹이 몰려오는 파도를 뒤로하고 한낮의 따사로운 햇볕을 쬐는 갈매기들로 행한 겨울 해변이 조금은 덜 쓸쓸해 보인다. 거센 파도의 포말 위로 일제히 날아오르는 갈매기떼를 보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고 발걸음을 재촉하니 돌문어잡이 어선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는 대포항이다. 대포항 등대로 가는 방파제에 그려진 트릭벽화는 비바람에 색이 바래긴 했지만 추억으로 남기기 위한 포토존으로 그만이다. 상생의 손을 주제로 한 트릭아트는 그 길이가 160m에 이른다.

대포항에서 이육사의 청포도 사비와 호미곶 등대를 지나면 해안둘레길 4코스 종착지인 호미곶의 '상생의 손'이 반긴다. 바다 위로 우뚝 솟은 '상생의 손'은 간혹 갈매기들이 조각작품의 손끝에 앉아 일출 명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새해에는 웬지 일출과 일몰 그리고 겨울 바다가 그리워진다. 이때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이 제격이다. ❶



① 옛날에 말을 관장했다는 장기 목장성비. 옛 장기 목장성의 흔적이 밀봉재 일원에 남아 있다.



② 장군이 아이를 업고 영일만으로 걸어가는 독특한 모양의 장군바위. 영일만(迎日灣)은 '해를 맞이하는 만'이라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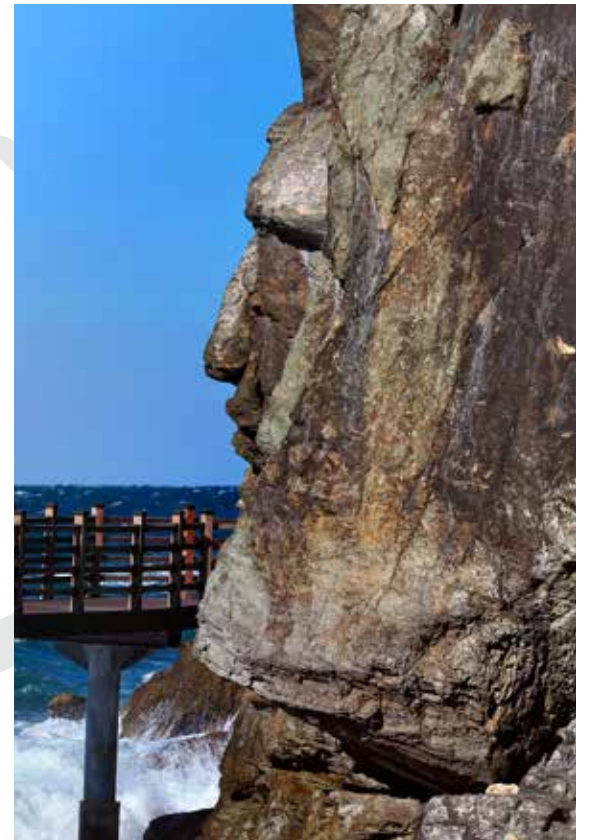
③ 파도의 흰 거품과 주변의 풍광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포구는 운치를 자아내고, 차디찬 바람은 청량감마저 느끼게 한다.



④ 아홉 마리 용이 승천했다는 구룡소는 높이 40~50m 정도, 둘레 100여m의 움푹 패어 있는 기암절벽이다.



⑤ 대동배 1리에서 2리까지의 1.2km 구간은 지방도로의 위험요소를 피해 조성된 소나무 숲길이다.



⑥ 암벽 앞 알은 바다 위에 조성한 데크길을 걷다 보면 이스터 섬의 모아이상을 닮은 바위를 만난다.



⑦ 파도와 해풍에 깎인 기묘한 바위를 자세히 보면 날개를 접고 앉은 독수리 형상이다. 해 질 녘 독수리 부리에 걸리는 낙조는 색다른 감동을 준다.



⑧ 포항 일대에서 바람과 파도가 가장 거센 구만리 해안가에 세워진 일본 수산강습소 실습선 캐응환(快鷹丸) 조난기념비



⑨ 바다 위로 우뚝 솟은 호미곶의 '상생의 손'. 호미곶에서는 매년 12월 31일부터 새해 첫날 아침까지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이 열린다.



비학산 자연휴양림

사계절 색다른 운치 선사하는 자연 속 휴양지

산의 형상이 벌판 위를 날아오르는 학의 모습을 닮은 비학산 자락에 있는 자연휴양림은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기에 안성맞춤이다. 코뿔소·코끼리·얼룩말 등 동물형 숙소인 카라반이 이채롭다.

글 이창호 기자 · 사진 전수영 기자



포항시 기북면과 신광면 경계에 솟아 있는 비학산(飛鶴山·762m)은 뭉툭한 정상부의 동쪽으로는 너른 들판에 낮은 산들이 있고 서쪽으로는 산등성이가 이어져 있는 독특한 산세다. 새의 머리처럼 생긴 정상부의 좌우로 대칭을 이룬 능선은 마치 한 마리의 학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이다. 정상은 조망이 사통팔달이다. 날씨가 맑으면 포항 시가지와 호미곶과 푸른 동해가 펼쳐진다. 비학산에는 신령스러운 이야기들이 얹혀 있다. 산의 동쪽 능선에 등잔혈이 있는데 이곳에 묘를 쓰면 자손이 번성하지만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예로부터 묘를 파헤쳐 송사가 자주 발생했고, 석곽의 흔적이 남아 있다. 기북면 소재지에서 921번 지방도를 타고 죽장 쪽으로 진행하다 탑정리 버스정류소에서 오른쪽 갈림길로

올라가면 기북산촌생태마을과 탑정지를 만난다. 길을 따라 올라가면 비학산 자연휴양림이 모습을 드러내고 맨 먼저 코뿔소·고양아·얼룩말·코끼리·토끼·사슴 등 동물 캐릭터를 본뜬 카라반이 눈길을 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카라반 앞에는 놀이터가 자리 잡았고, 그 아래에는 야영장이 조성돼 있다. 아늑하고 포근한 자연의 품속에 안겨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 이곳에서 아트막한 언덕길을 오르면 객실과 세미나실, 공동취사장을 갖춘 산림휴양관이다. 객실은 4인실 6개와 6~8인실 4개 등 총 10개로 각 객실 문에는 도투락(어린이용 탕기마리), 씨말레(영원한 친구), 미리내(은하수), 나릿물(냇물), 도래샘(빙 돌아서 흐르는 샘물), 늘해랑(늘 해와 함께 살아가는 밝고 강한 사람), 단미(사랑스런 여자), 다원(모두 다 원하는, 모두 다 사랑하는



사람), 초아(초처럼 자신을 태워 세상을 비추는 사람), 무아(무지개 뜬 아침같이 반짝이는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 같은 독특한 문패가 걸려 있다. 현재 연립동 숙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자연휴양림 내에는 야외무대, 야외 물놀이장, 숲 속 교실, 쉼터, 목교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 자연휴양림에서 비학산 정상까지는 2.8km로 왕복 2시간 정도 소요된다. 자연휴양림 인근에는 기북산촌생태마을·덕동전통문화체험마을 외에 덕동숲과 자연계류(연어대·합류대·와룡담) 등이 잘 어우러진 용계정(龍溪亭), 고산식물원·울릉도식물원·침엽수원 등 24개 소원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수목원이 있다. 용계정은 1546년에 건립된 것으로 임진왜란 당시 북평사(北評事)를 지낸 농포 정문부가 별장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국가지정 명승 제81호다. ❶



Tip

[이용 방법 & 요금]

비학산 자연휴양림은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휴양 공간이다. 객실 체크인 시간은 오후 3시이며, 체크아웃 시간은 다음날 정오다. 모든 객실에 TV·냉장고·에어컨이 구비돼 있고, 침구·식기 등 객실 내 비품은 투숙정원에 맞춰져 있다. 수건을 포함한 세면도구는 가져와야 한다. 객실 요금은 성수기(7월 1일~8월 31일)·주말(금, 토요일, 공휴일 전일)과 비수기가 다르다.

산림휴양관 4인실 7만원/5만원, 6~8인실 11만원/7만원

카라반 7만원/11만원. 40명 수용하는 세미나실(4시간 이내) 6만원

야영장 1만원. 야영장 체크인 시간은 오후 1시
체크아웃 시간은 다음날 오후 1시

[문의]

비학산 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 054-252-3275

[가는 길]

